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mphasizing *speed over frequency* can make sense in contexts where everyone is expected to plan around the timetable, including peak-only commute services and very long trips with low demand. In all other contexts, though, it seems to be a common motorist's error. Roads are there all the time, so their speed is the most important fact that distinguishes them. But transit is only there if it's coming soon. If you have a car, you can use a road whenever you want and experience its speed. But transit has to exist when you need it (span), and it needs to be coming soon (frequency). Otherwise, waiting time will wipe out any time savings from a faster service. Unless you're comfortable planning your life around a particular scheduled trip, speed is worthless without frequency, so a transit map that screams about speed and whispers about frequency may simply be planting confusion.

* commute: 통근

- ① consequences of adjusting frequency of transit
- ② significance of designing an accurate transit map
- ③ importance of valuing frequency in public transportation
- ④ impact of creating high-spe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 ⑤ methods to improve speed and frequency of commute services

23. [출제 의도] 주제 추론

[해석]

‘빈도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통근 서비스와 수요가 적은 아주 긴 거리의 운행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시간표에 맞춰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다른 상황에서, 그것은 운전자들의 혼란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는 항상 거기에 존재하기에, 그것(도로)의 속도가 그것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그것(대중교통)이 곧 도착하는 경우에만 거기에 존재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차가 있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어느 때든지 도로를 이용해 그것의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여러분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존재해야 하고(운행 시간대의 범위), 그것은 곧 도착해야 한다(운행 빈도). 그렇지 않으면, 기다림으로 인해 빠른 서비스로 절약된 시간이 모두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이 특정한 운행 일정에 맞춰 삶을 계획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면, 속도는 빈도 없이는 가치가 없으므로, 속도에 대해선 소리치고(강조하고) 빈도에 대해선 속삭이는(드러내지 않는) 교통 지도는 단지 혼란을 심어줄 수도 있다.